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뽕소니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옥수수 뽕소니」에서는 해당 작품과 같은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 및 성격,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갈래상 특징, 서술상 특징이 무엇인지와,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 및 심리 등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짜악!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일 단 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머리고 등짝이고 연신 얻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솜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그런데,

빠아아앙!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찢었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어, 야!”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데굴데굴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쇠뚜껑 깨질 듯이 쩡쨍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 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풀숲에 굴러서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

오십 미터를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혈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아픈 데 없니?”

“예.”

“어지럽진 않고?”

“괜찮은데요.”

질문을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이 튀어나갔다. 재준이가 어느새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 놓았다.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봐야지.”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괜찮은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어.”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머리를 굴적였다. 그러고는 품에서 휴대 전화를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 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였다.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 줘.”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없는데요.”

아저씨가 날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는 눈치였다. 이봐요, 아저씨가 들고 있는 폴더 폰이 더 거짓말 같거든요?

“그럼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 줘.”

나는 마지못해 이름과 번호를 불러 주었다. 아저씨가 번호를 저장하는 데 한참 걸렸다.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 봐.”

아저씨가 트럭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오십 미터쯤이니까 왕복 백 미터.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야, 저 아저씨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

재준이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다.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일 톤 트럭인데 짐칸을 포장마차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빛바랜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계란빵 세 개 이천 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1. 밑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급히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다.
- ② 아저씨는 쓰러진 ‘나’를 보며 얼른 일어서라고 다그친다.
- ③ ‘나’는 아저씨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 ④ 아저씨는 ‘나’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만 할 뿐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지 않는다.
- ⑤ 재준이는 책임감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멋지다며 칭찬하고 있다.

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아저씨’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임감이 있다.
- ② 조용하고 차분하다.
- ③ 단순하고 철이 없다.
- ④ 잘못을 저질러도 모르는 척한다.
- 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빠익, 우우웅!

이것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서,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켜진다.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금도 학교에서 내 준다.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실컷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일곱 시까지는.

게임할 땐 꼭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가끔씩 시계를 보면 성큼성큼 지나있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일곱 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때르르릉 때르르릉.

계속 지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 버릴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 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한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집 맞습니까?”

아, 짹짹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네.”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일할 땐 못 받으시는데요.”

거짓말이 영 점 이 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 나갔다. 가만 보면 나도 머리가 좋다. 그런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일까.

“집에 가서 보니 다친 데는 없었고?”

아,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지금, 분신과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만히 선 채로 계속 얻어맞고 있단 말이다!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주인공의 친구의 관점에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ㄴ. 주인공 '나'가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ㄷ.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ㄹ. 등장인물의 외양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친구 사이의 갈등을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글이다.
 ② '나'의 평소 일상생활을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 나타낸 글이다.
 ③ '나'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된 유용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이다.
 ④ '나'의 경험과 정서를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이다.
 ⑤ '나'가 사고를 겪고 옥수수 아저씨를 만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소설이다.

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② '나'는 게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③ '나'의 엄마는 '나'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
 ④ '나'의 아빠는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나'에게 알려 주신다.
 ⑤ '나'는 옥수수 아저씨의 전화를 이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삼 단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번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가 좁혀지잖아? 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숨넘어가는 고함 소리에 뒤를 보니 벌써 달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의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전했잖아!

짜악!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 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머리고 등짜이고 연신 얻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솜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그런데,

빠아아앙!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찢었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어, 야!”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데굴 데굴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쇠뚜껑 깨질 듯이 짹짹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 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폴숲에 굴러서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

오십 미터를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아픈 데 없니?”

“예.”

“어지럽진 않고?”

“괜찮은데요.”

질문을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이 튀어나갔다. 재준이가 어느새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 놓았다.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봐야지.”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괜찮은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어.”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머리를 굽적였다. 그러고는 품에서 휴대 전화를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 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였다.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 줘.”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없는데요.”

아저씨가 날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는 눈치였다. 이봐요, 아저씨가 들고 있는 폴더 폰이 더 거짓말 같거든요?

“그럼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 줘.”

나는 마지못해 이름과 번호를 불러 주었다. 아저씨가 번호를 저장하는 데 한참 걸렸다.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 봐.”

아저씨가 트럭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오십 미터쯤이니 왕복 백 미터.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야, 저 아저씨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

재준이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다.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일 톤 트럭인데 짐칸을 포장마차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빛바랜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계란빵 세 개 이천 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6.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인물이 겪는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 ③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④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드라마 촬영 기법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친구와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건물에 부딪힐 뻔했다.
- ② 아저씨는 붕어빵 장사를 한다.
- ③ ‘나’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말하며 사과한다.
- ④ 아저씨는 넘어진 ‘나’를 보고 걱정하며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받아 간다.
- ⑤ 아저씨는 커다란 승용차를 몰다가 ‘나’와 부딪힐 뻔했다.

8. ㉠~㉢ 중 아저씨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등장인물 중 ‘아저씨’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저씨는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서 ()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 ① 쉽게 발끈하는
- ② 모른 척하는
- ③ 책임감이 있는
- ④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 ⑤ 다른 사람이 간섭하기를 바라는

10. <보기>는 윗글의 서술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 ㉡, ㉢에 각각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보기>

「옥수수 빵소니」는 (㉠) (㉡) 시점으로, 인물의 (㉢)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 | | ㉠ | ㉡ | ㉢ |
|---|-----|-----|-----|
| ① | 1인칭 | 주인공 | 속마음 |
| ② | 1인칭 | 관찰자 | 외양 |
| ③ | 3인칭 | 관찰자 | 행동 |
| ④ | 3인칭 | 전지적 | 속마음 |
| ⑤ | 1인칭 | 관찰자 | 속마음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삐익, 우우우웅!

이것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서,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켜진다.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금도 학교에서 내 준다.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실컷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일곱 시까지는.

㉣게임할 땐 꼭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가끔씩 시계를 보면 성큼성큼 지나있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일곱 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때르르릉 때르르릉.

계속 지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 버릴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 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한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집 맞습니까?”

아, 켁켁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

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네.”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일할 땐 못 받으시는데요.”

거짓말이 영 점 이 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 나갔다. 가만 보면 나도 머리가 좋다. 그런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일까.

“집에 가서 보니 다친 데는 없었고?”

아,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지금, 분신과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만히 선 채로 계속 얻어맞고 있단 말이다!

“부모님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전해 줘.”

“네!”

투옥.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를 내리꽃듯이 놓아 버리고는 방으로 달려갔다. 내 분신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아아…… 젠장. 드러누웠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날 눕힌 것도 모자라서 내 캐릭터까지 눕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아저씨다.

11.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나’가 직접 구매한 것이다.
- ② ‘나’는 엄마의 전화를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 ③ ‘나’는 게임하는 것보다는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
- ④ 아저씨는 ‘나’의 부모님과 연락하기 위해 ‘나’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 ⑤ 아저씨는 ‘나’에게 전화를 빨리 받으라며 화를 냈다.

12. <보기>는 나의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보기>

‘나’는 철이 없고 단순한 성격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재준이에게 사정사정해서 스마트폰을 빌렸다. 어제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미안했는지, 생명과도 같은 물건을 내게 건네줬다. 물론 녀석이 학원을 마치면 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중략)

오오, 이십만 점! 점점 빠져들었다. 이 공간에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는 것 같았다. 경쾌한 효과음이 나의 최고 점수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검은 자동차가 날 덮쳤다.

끼이이익, 텅!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하늘과 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먼지가 얼굴을 덮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야, 인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정신을 차려 보니, 선글라스를 쓴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로 내 앞에서 있었다. 아, 여기 골목 삼거리였구나.

어제 사고 났는데 오늘 차에 또 치이다니! 나는 창피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핑글핑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긴 싫었다.

“아, 저,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네, 네!”

선글라스 아저씨는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까만 안경알 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예요. 어제 사고 났는데 멀쩡했어요.”

“뭐? 자랑이다, 인마.”

아저씨가 피식 헛웃음을 내뿜었다.

“네가 잘못된 거 알지? 길을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말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리조리 주위를 살폈다. 왜 그러냐 싶어 나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가 승용차에 급히 타면서 말했다.

“앞으로 조심해라!”

부우웅!

선글라스 아저씨 차가 출발했다. 뭔가 좀 이상했다.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아, 연락처!

이미 출발한 뒤라 늦었다. 그렇다면 차 번호라도 외워 두어야지! 어디 보자, 이십칠 라에, 어어? 방향을 꺾어서 사라졌다. 젠장…….

골목길이 허전해졌다. 기분이 영 찝찝했다. 이제야 팔꿈치랑 옆구리가 쓰라려 오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재준이 스마트폰은 어디 있지?

나는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휘휘 둘러보며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살폈다. 저기 있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그런데…….

망했다. 재준이의 스마트폰 액정에 대각선으로 금이 짝 가 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거 수리비 장난 아닐 텐데. 이번 주 정말 재수 옴 붙었다.

(나) 책임질 사람은 도망갔는데 나더러 어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대로 나만 덩그러니 쓸 수는 없었다. 나도 당한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교복 바지의 뒷주머니를 뒤졌다. 두 번 접힌 메모지가 나왔다. 펼쳐 보니 옥수수 아저씨의 연락처가 보였다. 침을 꿀꺽 삼켰다.

다시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한다. 이 사실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줄어들었다. 나는 집 전화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렸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가 가는 동안 나는 연거푸 심호흡을 했다.

“여보세요.”

“아…… 아저씨, 전데요.”

내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짹짹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 어제 자전거 탔던 학생?”

“……네.”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그게, 저…….”

“왜 그래? 아프면 솔직히 말해.”

㉠아저씨의 재촉이 서글펐다. 나는 액정의 ㉡균열을 바라본 채 입술을 악물었다.

“저…… 나중에 알았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 핸드폰이 깨져 있었어요.”

“뭐라고? 학생, 핸드폰 없다며?”

“그러니까, 친구 건데요. 제 가방에 있었어요. 어제 보셨죠? 저랑…….”

“아아, 같이 자전거 탔던 친구?”

“네, 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내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생각 중일까? 가슴이 마구 뛰었다. 아저씨가 잠시 후에 한마디 했다.

“몸은 이상 없고?”

“네에. 살짝 까져서 쓰라리긴 한데, 이 정도는…… 하하.”

으음, 웬지 말투가 ㉢비굴하게 나갔다. 이러다 의심받는 건 아니겠지.

“그래, 아저씨가 일 마치는 대로 들르게. 학생 주소가 어떻게 되지?”

나는 아저씨에게 고분고분 집 주소를 불러 주었다.

13. (가)~(나)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글라스 아저씨는 ‘나’를 걱정하며 여러 번 상대를 살폈다.
- ② 재준이는 부모님께 혼날까 봐 ‘나’한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않았다.
- ③ ‘나’는 첫 번째 교통사고에서는 크게 다쳤지만, 두 번째 교통사고에서는 다친 곳이 많이 없었다.
- ④ 선글라스 아저씨는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⑤ ‘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최신 핸드폰을 사드렸다.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
- ② ㉡: 미리 알림.
- ③ ㉢: 타고난 성질이나 성미.
- ④ ㉣: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 ⑤ ㉤: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쉽다.

15.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두 번째 교통사고와 관련된 인물로, 자신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는 태도를 보인다.

- ① ‘나’
- ② 선글라스를 쓴 아저씨
- ③ ‘나’의 담임 선생님
- ④ ‘재준이’의 부모님
- ⑤ ‘나’와 학원을 같이 다니는 친구

16. <보기>는 ‘나’가 ㉣와 같이 생각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가 다친 것과 스마트폰 수리의 책임을 아저씨에게 떠넘기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 ① 미안한
- ② 즐거운
- ③ 존경스러운
- ④ 분노의
- ⑤ 사랑스러운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나’는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가 트럭 경적 소리에 놀라 급히 오른쪽으로 틀면서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아저씨는 넘어진 ‘나’에게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아저씨는 옛날 폴더 폰을 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아저씨는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재준이는 ‘저 아저씨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와 같이 트럭 운전자의 직업을 유추하고 있을 뿐 아저씨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다.

2. [정답] ①

‘아저씨’는 넘어진 ‘나’에게 병원에 가 보라고 권유하며 집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아가는 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윗글에서 ‘아저씨’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윗글에서 ‘아저씨’의 단순하고 철이 없는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윗글에서 ‘아저씨’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른 척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윗글을 통해 ‘아저씨’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3. [정답] ②

ㄴ.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겪는 사건과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ㄷ. 윗글은 주인공의 친구의 관점에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ㄹ. 윗글의 서술자는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ㄱ. 윗글에서 등장인물의 외양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정답] ⑤

윗글은 ‘나’가 사고 이후 옥수수 아저씨를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와 친구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③ ‘나’가 알게 된 유용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서술자의 경험과 정서를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에 해당한다. 윗글은 소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①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를 통해 ‘나’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윗글에서 ‘나’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윗글의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실키트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일곱 시까지는’,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 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등을 통해 ‘나’의 엄마가 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아빠가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나’에게 알려 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아, 짹짹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다. 괜히 받았다.’ 등을 통해 ‘나’는 옥수수 트럭 아저씨의 전화를 귀찮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②

소설은 인물이 겪는 갈등과 그 해소를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윗글은 소설로, ‘나’라는 인물이 겪는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윗글은 보고하는 글이 아니며,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윗글은 소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윗글은 소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은 소설로, 드라마 촬영 기법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④

‘나’는 걱정하는 아저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불러주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는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하다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된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아저씨의 트럭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계란빵’이 쓰여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가 아저씨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아저씨는 ‘낮은 일 톤 트럭’을 개조해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㉔ ‘옛날 폴더 폰’을 통해 아저씨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㉑ ‘일 단 짜리 자전거’는 ‘나’의 물건이므로 아저씨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② ㉒ ‘보호 난간’은 ‘나’가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아저씨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③ ㉓ ‘폴숲’은 ‘나’가 넘어져 구른 곳으로, 아저씨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⑤ ㉔ ‘집 전화번호’는 ‘나’와 관련된 것으로, 아저씨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9. [정답] ③

윗글에서 아저씨가 다친 ‘나’를 걱정하며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받아가는 모습을 통해 아저씨는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윗글을 통해 아저씨가 쉽게 발끈하는 태도를 지닌 인물인지 알 수 없다.

② 윗글에서 아저씨가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을 모른 척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윗글에서 아저씨가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윗글에서 아저씨가 자신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간섭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10. [정답] ①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아저씨가 ‘나’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가 엄마의 전화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윗글에서 ‘나’가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아저씨가 화를 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2. [정답] ⑤

㉔에서 ‘나’는 아저씨의 전화 때문에 게임에 졌다고 짜증을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성격이 철이 없고 단순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㉔는 작년에 ‘나’가 학교에서 컴퓨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㉔는 ‘나’의 컴퓨터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㉔는 ‘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으로, ‘나’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㉔는 ‘나’가 게임할 때 드는 생각으로, ‘나’의 철이 없고 단순한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13. [정답] ④